

보고서

Report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참관 보고서

신춘규 | 국제담당 이사

2011년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는 미국 남부도시인 뉴 올리온즈에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본 협회에서는 강성의 회장 내외분과 류춘수 전부회장(HFAIA) 그리고 신춘규 이사가 대표로 참석을 하였고, 2017년 UIA 서울총회 유치를 위해 UIA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조성중 위원장, 한종률, 김성민, 심재현 위원), 그리고 FKA 회장인 이상림 회장 내외와 한국건축가협회의 최두호 부회장, 박재유 위원장, 그리고 대한건축학회의 이언구 회장 등이 참석을 하였다. 뉴 올리온즈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막대한 상처를 남기고 간 도시로서 지역적 도시에 맞게 이번 총회의 주제는 'Regional Design: Revolution & Ecology Matters (지역적 설계 & 혁신: 환경적 문제)'로 정했다.

뉴 올리온즈의 어니스트 모리올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는 크게 4개 부류의 행사로 나누어져 볼 수 있다. 제너럴 세션으로 불리는 상징적인 행사, 건축분야별 전문 계속교육, 건축자재 전시회 및 각 종 축하 만찬 행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본다면 다음과 같다

제너럴 세션

매일 1회씩 개최하는 제너럴 세션은 참석 전 회원을 대상으로 기초 주제강연 등을 하고 AIA를 대표하는 각종 상을 수상하는 행사이다. 첫 번째 제너럴 세션(GS01)은 총회 개막식과도 같은 행사로서 특이하게 회장(Clark Manus, FAIA)이 별도의 사회자 없이 직접 행사를 주관한다. 개막식에 어떠한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는 것도 미국 총회만이 갖는 특징이라고 사료된다. 첫 날 개막식에는 약 5,000여명의 참석자가 있었다.

첫날은 뉴욕 타임즈의 국제부 칼럼니스트이고 풀리처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이 "거대 지역: 미래의 세계, Mega-regions: The World of Future" 란 주제로 기초 강연을 했다. 그는 그의 책 "Hot, Flat and Crowded"에서 지적한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녹색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들이 거대 지역으로 연계하여 미국을 재생시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올해의 건축사사무소상을 수상했는데, 캔사스 시티에 기반을 둔 BNIM이라는 사무실이 영광의 수상을 하였다. 시상식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파트너들의 인터뷰와 작품들을 영상으로 보

여주고 파트너들과 직원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수상을 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한 보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건축정책행동위원회(ArchiPAC)의 위원장을 회장이 직접 소개하고 올해 총회에서의 기금 조성 목표액이 15,000불 임을 공표하고 협조를 구했다.

금요일 두 번째의 제너럴 세션(GS02)은 1973년도 회장인 스캇 퍼리비 주니어 회장에게 건축계의 공헌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그 증서를 전달하고, 협회의 막대한 공로를 한 건축사에게 주는 상인 에드워드 캠퍼 어워드에는 체스터 워덤(FAIA)이 수상했다. 이어 올해의 가장 영예로운 상인 AIA골드메달은 일본인 후미히코 마키 건축사에게 돌아갔다. 골드 메달 수여식도 마키선생에 대한 젊은 파트너와 주변 건축사들의 인터뷰와 더불어 작품 등을 영상으로 보여주었고 시상식에는 총회에 참석한 역대 회장 18명이 함께 무대와 나와 축하해주는 모습이 아주 특이하고 미국건축사협회의 골드메달이 공히 영광스럽다는 것을 되새기게 해주는 데 충분했다고 본다. 마키 선생도 수상소감에서 건축사로서의 골드메달이 아니고 올림픽에서 골드메달을 받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기초 강연에는 넥스트 프랙티스(The Next Practice)의 창업자이며 지속가능성의 옹호자인 켄 브루그만(Jeb Brugman)이 그의 저서 "도시혁명으로의 환영: 어떻게 도시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가?(Welcome to Urban revolution: How Cities are changing the World)"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실상 폐회식인 마지막 제너럴 세션(GS03)에서는 미국 수출입은행의 명예이사인 비잔 키안(Bijan R. Kian)이 현재의 경제지표에 대해 간단한 강연을 한 후 사회에 공헌을 한 흑인 건축사에게 주는 휘트니 영 주니어 상(Whitney Young Jr. Award)의 시상식이 있었다. 이 상의 영예는 샤론 수튼 박사(Dr. Sharon E. Sutton, FAIA)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이어 건축사협회와 건축교육협회가 건축교육에 공헌한 교수에게 공동 수상하는 토파즈 메달(Topaz Medalion)은 오스틴의 텍사스대학 로렌스 스팅 교수(FAIA)에게 영예가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공공 건축에 공헌한 공공건축사들에게 영예를 주는 토마스 제퍼슨 어워드(Thomas Jefferson Award for Public Architecture)는 제임스 브링클리(FAIA)와 데

이버 버니(FAIA)에게 돌아갔다.

이어 도시의 수장으로 각 도시를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인 악조건 속에서 재건을 하고 저 노력한 시장들을 초청 그들의 정책을 토론하는 세션을 가졌다. 주제는 "정치와 지역사회 그리고 디자인 리더십을 통한 상징적 도시를 변화시키기(Transitioning Iconic Urban Centers through Political, Community and Design leadership)" 로 호놀룰루 시장인 제레미 해리스와 덴버의 시장인 마치 앤드류를 초청하여 토론을 가졌다. 토론 전 호놀룰루의 제레미 시장은 호놀룰루가 기후 온난화로 바다의 수면이 1미터 정도 상승할 경우 호놀룰루가 30%이상이 수면에 잠기게 되므로 그를 대비해 도시의 인프라를 개조하는 작업을 도시계획가처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 후 마지막 행사로 국제 단체장에게 수여하는 프레지덴셜 메달(HIAA)은 유럽연합회 회장, 아카시아 회장, 호주 회장과 코스타리카 회장 4명이 수여를 했다. 내년에는 한국의 회장이 프레지덴셜 메달을 수여받게 된다. 아쉬운 장면은 시장들의 토론이 시작할 즈음 참석자의 90%이상이 자리를 떠 프레지덴셜 메달 수여식이 조금 무색해진 장면이었다.

계속교육: CES(Continuing Education System)

미국건축사협회가 자랑하는 계속교육제도 시스템은 실로 놀라울 정도다. 건축사는 총회를 참석하며 계속교육을 받고 건축사보는 계속교육을 받아야 NCARB(미국건축사등록원)에 학점을 등록 건축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미국건축사협회 회원은 회원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18 계속교육 런닝유닛(LU)을 획득해야만 한다. 또한 이 18유닛 중 8유닛은 HSW(Health, Safety and Welfare)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중 4유닛은 지속가능성에 해당되어야 한다. 면허를 관리하는 각 주의 건축사관리원(State Architect Board)도 면허를 갱신하려면 소정의 계속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각 주마다 기준이 다른 데 오하이오 주의 경우 2년 동안 24유닛을 요구하고 이중 16유닛은 HSW에 해당되어야 한다.

회원으로서 총회에 참석 계속교육을 들으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조기등록을 할 경우 회원의 경우 475불, 나중엔 550불을 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비회원의 경우는 거의 750불을 내야 전체 등록이 가능하고 계속교육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총회기간 동안에 컨벤션 센터에서 제공하는 계속교육은 약 157개로서 종류나 제공자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교육제공자는 협회에 교육자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건축사, 자재공급자 또는 생산자나 정책 수립자 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될 수 있다. 엑스포장에서의 자재 전시자들이 등록하여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인정이 된다.

참여건축사들이 2,000여명으로 볼 경우 다 조기등록이 된다면 950,000불로서 한화 10억 여원이 넘는 수입금액이 발생한다.

아직 일부 세미나의 강의 내용 등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아침 6시

반부터 시작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미국건축사들의 열기를 보면 미국의 건축계속교육은 성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기획된 건축투어를 계획하고 이 가이드가 있는 건축투어에 참여를 원할 경우는 별도의 등록비를 내고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소정의 계속교육 이수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전시회

엑스포는 연방정부의 교육제공 장소를 포함한 공공건축사 교육 및 각종 수상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진다. 이번 뉴 올리언즈에서는 전시장에 주 공간을 예비뉴라는 도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전시회를 구성하였던 점이 독특하다. 약 700여개의 자재부스 등이 전시되어 규모면에서 장관을 이루었다.

연방정부의 특정기관 및 각종 건설관련 단체 등의 전시 부스에서 올해의 수상 작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점, 브래드 피트 하우스 같은 카트리나 복구 노력(브래드 피트가 카트리나 피해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Make It Righ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 각 국의 유명 건축사에게 주택 설계를 후원 받아 지어주는 사업)을 위한 사회적 참여 프로젝트들을 전시하는 것도 눈을 끌었다.

예비뉴의 한쪽 끝에 AIA Town Hall을 설치, 건축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대화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든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AIA Bookstore and Giftshop

미국건축사협회의 서점 및 기프트 숍은 규모가 있다. 맥그로우 힐이나 윌리 등 굵직한 서점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AIA 마크가 찍힌 건축사적용을 발행하고 회원에겐 일정금액 할인혜택(5~10%)을 준다. 특히 총회 기간 중에는 기초강연자나 골드메달 등 수상자들이 그들의 책을 지정된 시간에 판매하며 사인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홍보를 한다.

선물 등 기념품 판매점에서는 다양하고 독특한 디자인 품목을 많이 내놓아 소득을 올리는 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 축하 부대행사

총회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행사가 이루어진다. 각 지역별 건축사회 모임 및 대학동문회 등이 이루어지고 수상자의 축하 만찬 리셉션이 계획된다.

특히 총회에 초청되거나 참석한 해외단체장을 위한 국제위원회 주최 국제 리셉션 과 국제단체장 포럼, 그리고 FAIA의 수여식(Investiture Ceremony)와 평의원 만찬(Convocational Dinner) 등 상징적인 공식 리셉션 및 만찬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 회원들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단결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 FAIA(Fellow of AIA)는 건축의 다섯 개의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위 멤버십의 일종으로 전 회원의 약 2%이내에서만 선정된다. 수여식은 일반적으로 총회가 있는 도시의 가장 유명하고

역사가 있는 성당 등을 선택하여 엄숙한 분위기에서 시행된다.

국제위원회 리셉션(International Reception)

국제위원장이 헬렌 해치(TVS Design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주최로 열린 리셉션은 말 그대로 선채로 칵테일 리셉션이다. 해외에서 참석한 각국 대표단과 미국협회의 회장 및 국제 활동의 원로들 등 100여명 이상이 대거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국제단체장 포럼(International Presidential Forum)

국제 단체장 포럼은 미국협회가 총회 기간 동안 초청한 해외단체장들을 모아 각국의 건축적 현안들을 발표하고 나누는 공식적 행사이다. 특별히 올해에는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 뉴 올리온즈의 카트리나 피해 후 복구와 관련 환경변화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각국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대해 관심 있게 물어보았다.

미국에서의 참석자는 미국건축사협회 현 회장, 차기회장, 수석 부회장, 국제위원장, 미국 등록원(NCARB)의 회장, 차기회장, 교수협의회 회장, 학생협의회 회장이 참석을 하고, 국제단체장으로는 UIA회장, ACE회장, 아카시아 회장, 중남미회장 및 영국, 캐나다, 호주, 코스타리카, 멕시코, 일본, 한국 등이 참석을 공식대표단으로 참석을 했다.

올해 특이한 것으로는 미국협회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도 공식초청을 하고 회장이 참석을 했지만 공식석상에는 앉지 못하고 옵서버로 참석을 했다. 한국은 사협회 회장과 가협회 회장이 나란히 앉아 한국에 대한 보고를 낭독하던 것을 FKA회장으로 대표성을 주어 작년 부터 FKA 회장이 공식대표가 되고 발표에 참여하였다. 올해는 학회의 회장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다.

평의회 만찬(Convocational Dinner)

평의회 만찬은 미국건축사협회 부대행사 중 꽃이라 불리는 행사이다. FAIA 멤버만 참석을 할 수 있는 이 만찬은 별도로 250불에서 280불 정도의 만찬경비를 내야 등록이 가능하다. 초청된 해외 단체장이라도 예외가 없는 점이 특이하며 이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블랙의 드레스 코드를 맞추어야 한다.

평의회 만찬을 통해 새롭게 임명된 FAIA멤버들을 축하하고, 그들이 평의원이 되었음을 자축하고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명실상부한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 행사로 총회의 마지막 공식적 행사이다.

올해의 행사에는 약 100여명이 새롭게 FAIA 멤버로 등록을 했고 전체 약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 AIA 만찬

13일 금요일 저녁 힐튼 리버사이드 뉴올리온즈 호텔에서 가진 한국 AIA 만찬에는 UIA 2017 총회의 서울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경비로 해외단체장을 초청하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다. 김성

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만찬에는 ACE 회장과 아카시아 회장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코스타리카, 일본, 싱가포르의 단체장들이 참석 서울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했다. 준비해간 서울 유치를 위한 PPT 설명은 가협회 한종률 위원이 했고 아주 성공적이고 서울을 잘 설명한 것으로 극찬을 받아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맺음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를 참석하면서 항상 배우는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적당히 치루더라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요인들을 한 번 열거해보고자 한다.

- 총회를 건축사 회원들만의 축제로 만든다
-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에 정치인이나 고위직관료들이 초청 된 적이 없다.
- 별도의 전문 사회자가 없이 회장이 직접 능숙하게 무대를 압도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평의회 만찬의 경우 FAIA의 의장이 직접 만찬을 주도 한다.

- 명예로운 수상식을 통해 수상자들의 자부심을 극대화한다
- 상징적이고 중요한 상들은 상의 역사를 소개하고 수상자들의 활동 등을 상세하게 영상으로 소개하고 직접 소감들을 발표하게 하여 축하를 해주는 분위기가 참 이채롭다.

특히 골드메달, 올해의 건축사사무소, 사회공로자 등의 시상식이 있는 경우는 모든 참여자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분위기를 연출 참석자들이 수상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볼 만하다. 특히 골드메달리스트나 올해의 건축사무소의 경우는 시상식 후 작품서적을 AIA Bookstore에서 판매하고 일정 시간 사인회를 하게하는 등 다양한 행사로 시너지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 계속교육 시스템의 정착

미국건축사협회의 계속교육 시스템은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다. 회원의 경우 조기등록 시 475불을 내고 전체 등록을 해야 하고 (개별 교육별 등록 도 가능함) 뉴욕에서 뉴 올리온즈를 올 경우 항공료 왕복이 싸면 250불 정도 4박5일 체류를 하려면 호텔비 400불 정도에 식사비 등을 고려하면 약 1500불(한화 1,650,000원에 해당)정도를 예산해야만 가능하다. 약 2,000여명의 건축사가 참석을 한 올해를 보면 이 참석자들은 1년중 이 기간을 자기의 휴가 기간으로 생각하고 배우자와 같이 오는 등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무료이고 오히려 거마비나 교통편까지 제공해주어야 하는 우리 협회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미국건축사협회의 계속교육은 거의 90년 초부터 시작을 하여 10여년 이상을 거쳐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 미 건축 등록원이나 각 주의 건축원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 협회의 계속교육을 통해 이수된 학점

이 거의 100% 인정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 협회도 등록원의 정착을 반드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계속교육을 통한 회원 자질의 함양 등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식의 재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ArchiPAC(건축정책 행동위원회)의 운영

미국의 경우는 특정단체가 특정정치인을 후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을 중요시 여기는 의원들의 정책수립과정에서의 협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거나, 미래의 정치희망자에게 건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기금을 별도로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협회 외부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협회의 건축사들로만 운영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 올해 총회에서는 15,000불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회장이 독려를 하고 거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위원회는 우리 협회의 경우 회장의 개인역량에 따라 로비역량이 차이가 나고 차기 회장에 가면 단절이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에 많은 도움이 될 시스템으로 사료된다.

• FAIA 제도 운영

FAIA는 Fellow of AIA의 약자로 협회의 평의회에 해당한다. 전체 회원수의 약 2%정도에 해당하는 비율로만 운영하고 저 한다. FAIA의 자격은 AIA 회원중, 설계, 실무, 교육, 공공 등 다섯 개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가진 회원을 소정의 심의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회원은 총회 기간 중 그 도시의 가장 고풍스러운 성당이나 교회를 임대해 수여식(Investiture Ceremony)을 엄숙하게 시행한다. 이 수여식을 통해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회원 누구나 평의원이 되길 소망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총회의 공식적인 마지막 행사로 평의원 만찬(Convocational Dinner)라고 하여 1인당 280여불씩 상당하는 티

켓을 판매하고 600여명의 FAIA 및 가족을 초청 블랙타이의 드레스코드에 맞게 공식적인 만찬을 거행하고, 이 만찬에서 한사람 한사람 호명하여 새로운 평의원이 됨을 축하해주고 시간을 갖는다.

• AIA Bookstore 및 Giftshop 운영

상당한 수의 가치 있는 디자인 상품들을 협회 로고를 부착해 판매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전문서적은 건축분야별 다양한 서적을 맥그로우 힐, 윌리 등 세계적으로 정쟁한 출판사와 손을 잡고 출판 판매하며 회원을 상대로는 5~1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유명한 실무관련 서적인 건축실무를 위한 건축사 핸드북(Architect's Handbook of Professional Practice)가 대표적인 서적이다. 특히 기초강연이 끝난 후 유명 건축사들이 서점에서 북사인회를 열어 판매를 홍보하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 미래를 위한 제언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는 우리가 배우고 습득할 것이 많은 총회로 여겨진다. 앞으로는 국제위원만이 방문하는 총회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협회에 봉사하는 건축사회원들이 참석하여 다방면의 제도를 보고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미국 총회는 최영집 전회장 때부터 FICA회장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이번 총회에는 이상림 가협회 회장이 FICA 회장의 자격으로 국제회장단 포럼에 참석하였다. 미국협회와 MOU가 없는 학회회장이 이상림회장의 독려로 참여하게 되고 앞으로 FICA회장이 대표로 참석하는 것을 공식화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혀 모든 국제관계에서 FICA와 우리 본 협회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AIA 2011 주제

컨벤션 홀

총회 제너럴 세션의 무대

총회 제너럴 세션의 참석회원

ArchiPAC(건축정책행동위원회) 홍보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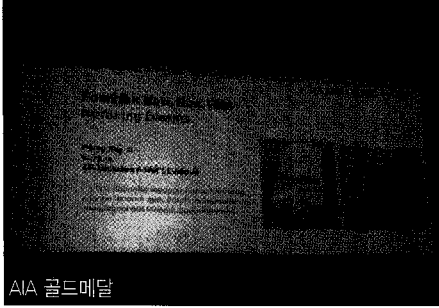
ArchiPAC 기금모금



올해의 건축사무소 상



올해의 건축사문소 상주상



AIA 골드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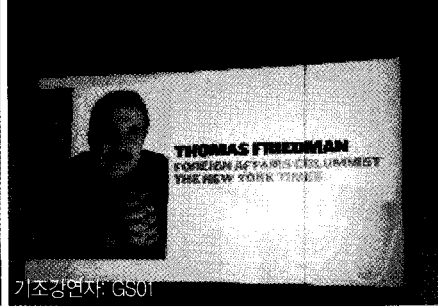
올해의 AIA골드메달- 후미히코 마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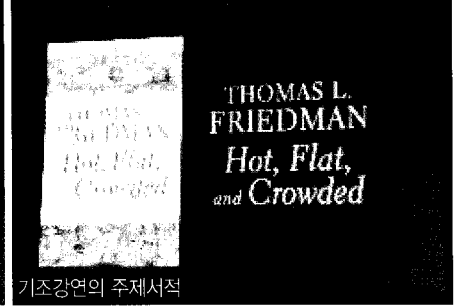
AIA 골드메달 수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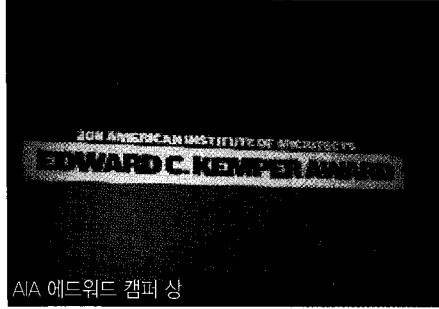
AIA 골드메달(역대회장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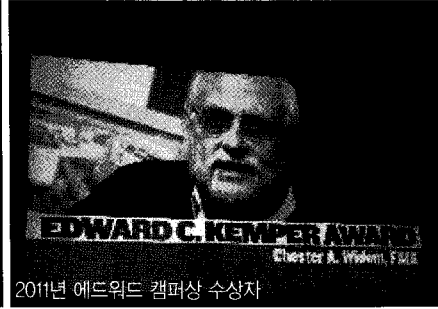
기조강연자: GS01



기조강연의 주제서적



AIA 에드워드 캠퍼 상



2011년 에드워드 캠퍼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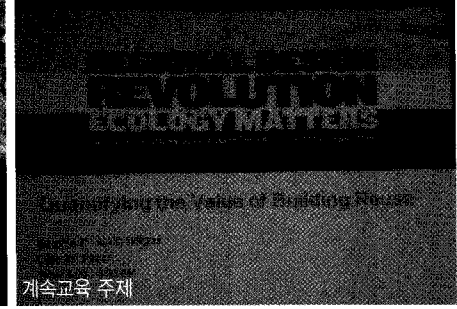
기조강연자(GS02)



기조강연(GS02)의 주제: 도시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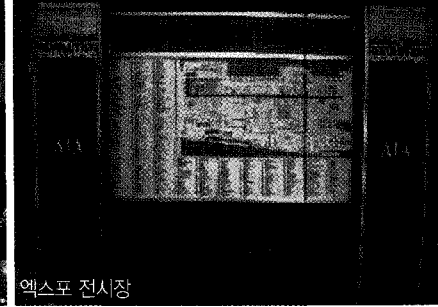
AIA CES(계속교육) 등록기



계속교육 주제



계속교육 세미나 장



엑스포 전시장



엑스포전시장의 예비뉴



전시장내 계속교육(안담부)



브래드 피트하우스 전시판넬



브래드 피트 하우스 모형전시



Investiture Ceremony 안내



International Reception



Convocational Dinner-re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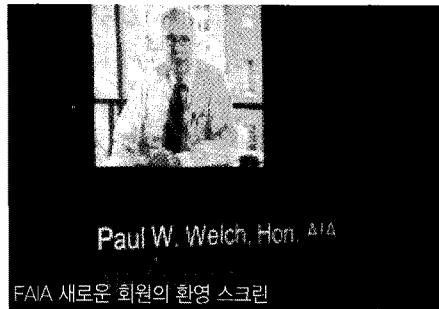
Convocational Dinner



일본대표단과 함께



Convocational Dinner 자리배치도



Paul W. Welch, Hon. AIA

FAIA 새로운 회원의 환영 스크린



AIA 회장과 함께



Korea AIA Dinner



Korea AIA Dinner 전경



Korea AIA Dinner



Korea AIA Dinner



Korea AIA Dinner



FIKA 단합대회